

아이에게 부모는 우주입니다.

김나림 교수
(전주비전대학교 유아교육과)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생생하게 떠오르는 날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처음 만난 날, 아이가 나를 바라보며 처음 엄마라고 불러준 날, 한걸음 떼기 시작한 날.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라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생생한 그 날들이 있습니다.

제게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3월 어느 날 30개월 아이를 맨 처음 버스에 실려 보내며 어린이집을 보낸 첫날입니다. 기쁨보다는 염려와 걱정이 한가득 이었던 그날입니다.

처음 어린이집 온종일 보육을 시작한 날, 퇴근 후 허겁지겁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데리러 가던 길에 오만 생각이 다 들었어요. 하루 종일 엄마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엄마를 만나면 얼마나 서럽게 울까 하는 생각들이요. 물론 며칠의 어린이집 적응기간과 신입원아 오리엔테이션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어린이집에 도착하여 아이를 마주했는데, 생각보다 잘 놀고 있었습니다. 물론 몇 차례 엄마를 찾기도 하고 속상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잘 먹기도 했고 잘 자기도 했다는 선생님 말씀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울고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징징거리는 며칠을 보내고서는 아이는 점점 어린이집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심심치 않게 어린이집 친구들 이름을 부르며 놀이하는 제 아이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부모는 우주입니다. 엄마 또는 아빠의 표정과 몸짓에서 모든 것을 알아채거든요.

3월 어린이집을 처음 보내는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을 잘 다닐 것이라는, 아이를 믿어주는 표정과 마음일 것입니다. 좀 두렵지만, 세상을 향해 한걸음 나아가고, 집이 아닌 기관에 맨 처음 씩씩하게 들어가는 마음요. 아이들은 교실에서 친구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며 어린이집에서 함께 지켜야 할 규칙과 질서도 배우게 되지요. 이러한 아이의 경험은 아이의 뇌의 일부분에 자리를 잡으며 평생 동안 스스로를 다독이고 용기를 북돋곤 합니다.

'난 좀 두렵지만 끝까지 잘할 수 있어'라고요. 물론 아이마다 성장의 속도나 성향은 모두 다릅니다. 조금 빨리 가는 아이, 조금 천천히 가는 아이, 주변 정리를 잘하는 아이, 엄마 말을 귀 기울여 잘 듣는 아이 등등요. 오롯이 내 아이의 성장 속도나 성향을 완전히 잘 아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내 아이의 성향을 존중하며, 우리 아이가 세상을 따뜻한 마음으로 익혀가도록 선생님을 믿어주고, 무엇보다도 아이의 하루하루가 괜찮은 나날들이 되도록 지원하고 지지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3월 첫 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님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아이를 다독이고 위로하듯,
아이를 기관에 보내는 우리 자신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ですよ..
'엄마. 수고했어요. 오늘도 잘 하고 있어요.'